

2017학년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7년 4월 28일(금요일) 11:00 ~ 12:50

○ 장소 : 대학본부 8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위원장 인사 4. 위원장 개회 선언 5. 안건상정 6. 폐회

○ 상정안건

- 2016회계연도 전북대 대학회계 결산안
- 2017년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안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

간 사 : 지금부터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권진철)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국민의례를 마친 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습니다.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는 구성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고규진)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
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대학회계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6회계연도 대학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함.
(박성일)

정명회계법인 : 재무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함.
(회계사)

위원장 : 제안 설명과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규진)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 네.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 위원 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
(고규진) 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진)

위원들 : (전원 거수)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 12분 의원 모두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고규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으로 **2017년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 경정 편성안** 건을 상정합니다.

(고규진)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7년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안**」에
(박성일)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제안 설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규진)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취업활동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길 바랍니다. 사전설명회
(한상욱) 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했는데, 취업지원처, 사무국 등의 부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으로 늘어난 추정 예산 중 소통복지본부의 예산 증액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발전지원부와 홍보실이 소통복지본부로 조직 개편되었습니다. 발전지원
(박성일) 부의 발전지원금은 운영비 성격으로는 사용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장학금은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합니다. 삼성문화회관의 기본자산에 대한 이자수입 장학금과 기부자들이 장학금 목적으로 기탁한 돈이 있습니다. 모두 장학금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감사 표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전기금을 꾸준히 납부할 경우 명절 등에 기념패 등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지원부는 감사를 받고 관련 회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명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 원 : 발전재단의 회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발전지원재단
(한상욱) 의 지원을 학생들이 낸 돈으로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대학본부에서 구성원들이 비웃는 'ㅈ' 로고를 만들었고,

그 로고를 홍보하기 위하여 신입 교수들에게 새로운 로고를 반영한 명함을 배포하였으며, 'ㅈ' 현수막이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위상 고취를 위하여 교수들의 논문 게재나 국제학회발표 등에 전폭적인 지원과 학교의 영문명칭을 Joenbuk로 바꾸는 작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위상고취 정책의 시행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 발전지원재단에서는 운영비 성격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비 자체가 (박성일) 외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식사도 3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다른 경로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다고 확답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좋을 때는 기본재산의 이율이 상당했는데, 지금은 기본 재산의 발전재단의 이율이 너무 낮고 이자가 2프로대 내외라서 예전의 4프로대의 절반 이하라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기본재산의 장학금도 적어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학생처장 : 학생과에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에 (박주미) 는 이자수입으로 나가는 장학금과 기탁자의 지정 장학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정 장학금은 목적에 맞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장학금은 발전지원금 장학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규모가 작아 학과에서 갖는 장학금의 존재가 미미합니다. 기탁 장학금은 기탁 목적에 맞게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원 :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의견을 냅니다.

(한상욱) 우리 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등록금이 낮은 편입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문과계열 학생들 보다 100만원 정도를 더 내고 있지만, 납부한 금액에 비해 혜택이 매우 적습니다. 이공계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을 때는 실험실습비 항목이 있지만, 등록금을 받은 후에는 따로 실험실습비 항목이 없이 전체 등록금으로 사용되는 현재 대학회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회계를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 대학발전 활성화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규진) 위원 있으십니까?

위 원 : 교수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홍보 활동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학생회장 (백승우)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회는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70주년 행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고, 학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봉사 및 대동제 등에도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처장 : 대학회계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학생과에 (박주미) 서 배정되는 학생 및 총동아리연합회 등과 관련된 예산은 줄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학생처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많이 배려해주셔서, 작년보다 해외봉사를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 학생 후생복지비로는 증액이 되었지만 학생들의 체감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규진) 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 한 분 위원께서 반대하셨습니다.
(고규진)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 건을 상정합니다.
(고규진)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에 대하여
(최용재) 설명함.

위원장 : 작년과 올해의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고규진)

기획본부장 : 모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재)

위원장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체 액수 차이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고규진)

기획본부장 : 전체 예산이 증액 되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증액에 많은 어려
(최용재) 움이 있었습니다.
또, 관련 예산의 증액은 법률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원수 증가
의 이유가 아닌 실적 등으로는 증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원 :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기성회계에서 봉급생으로 받던 돈을 지금은 교육과 학생
(한상욱) 지도 및 연구업적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쓸
모없는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국립대학 전 교원들이 엄청난 역량을 낭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전체적 이해를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고규진)

위 원 : 세액 공제 금액의 증가는 세미나 참가비, 인센티브 등 몇 년 간 납부하지 않았
(한상욱) 던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과 비교해서 올해 봉급이 많이 인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센티브에서 공제를
하든, 봉급에서 공제를 하던 일괄 공제가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 현재 소득세 공제는 시스템 상 특정항목에서 일괄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박성일) 그렇기 때문에 임의 작업이 필요한데, 과세 표준 및 세액 기준이 소득자 별로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문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 제기 및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연말정산에 일괄 공제를 피하고, 해당 항목 지급 시 소득 공제를 하여 세액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항목에서의 공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공제내역을 명시하여 안내하는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학생처장 : 2017년 2월~3월 연말정산 소득세 분납 시에 소득세 과다로 급여를 못 받는

(박주미)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되 한꺼번에 공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 원 : 교육 연구 학생지도비 관련 과거 선금 50%, 기성금 50% 지급되던 것이 현재 (한상욱) 선금 40% 기성금 60%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 세금 공제 측면에서 학교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현재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이전에 비해 세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 논문 게재료 및 논문 인센티브 지급 고지가 충분히 안 된 거 같습니다. 세금의 선 공제 없이 인센티브를 모두 지급하고, 연말 정산 시 납부 세액을 안내하고 이 금액에 세액 공제를 하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추가

(박성일) 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의 징수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에 관련 금액을 일괄 반영하여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 공제 신 3개월 분납을 고려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보다 적게 보수를 받거나 급여가 부족하여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획본부장 : 급여명세서 항목에 세금의 공제 여부를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재)

위 원 :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명시가 된다면 민원이 감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동호)

재무과장 : 덧붙여 설명드리면, 논문 인센티브 관련 업무는 산학협력단입니다. 재무과는 원

(박성일) 천징수 의무자로서 요청된 금액의 공제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본부장 : 세금 공제되는 항목에 대한 명기 요청은 관련 부서별로 업무 협의가 있어야

(최용재)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공문 상으로 안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위 원 : 이 자리에서 해결을 보는 것은 어렵고, 협의를 하신 후 결과를 안내해주시면
(고동호)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원 : 공대, 의대, 치대 등 경우만 빼 놓고, 미리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
(한상욱) 겠습니다.

재무과장 : 급여 지급 시 일률적으로 해당 항목의 세액 공제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정기
(박성일) 급여 지급 시 세액공제가 되는 상황에서 급여일 이후 지급 분은 과세가 불가능
합니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가 급여일 전에 공지가 된다면 즉시 반영할 수는 있
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이 자리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수회 대표 한상욱 교수님과
(고규진) 협의하여 불편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 원 : 교수협의회와 공직협에 이번 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세액공제가 한번에 많이
(김학용) 되어서 봉급을 받고도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기획과에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용재 기획부분부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안전
(고규진) 에 대해서 거수로 찬반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수회에서 시기 등을 논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까?

위 원 : 먼저 세액을 공제할지 아닐지 그 안전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안전 표결해도 될
(한상욱)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 잠정적으로 의결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황호진)

재무과장 : 세부적인 것은 회의록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일)

위 원 : 회의록 참고하여 협의하고 나머지들은 안전 처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안건 자체를 변경 없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고규진) 회의록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전원 거수)

위원장 : 네. 12분 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 12표로
(고규진)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고규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3회 재정위원회 시에는 한상욱, 장환석, 박미순 위원께서 수고
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한상욱, 장환석, 박미순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회의록 간서명 위원으로 한상욱, 장환석, 박미순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
(고규진) 포함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학년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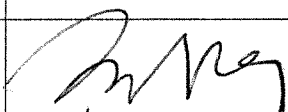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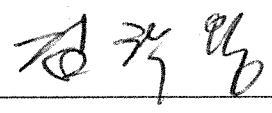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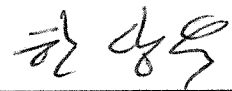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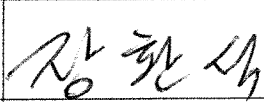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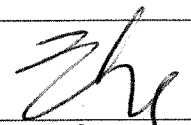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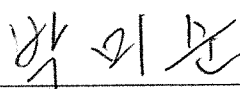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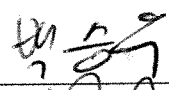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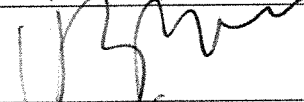
간사 :

기록자 :

고 규 진
권 진 철
박 민 규

2017학년도 제4회 재정위원회 참석자 명부

회의일시 : 2017. 4. 28.(금)

구분	소속	성명	서명	비고
당연직 위원	교학부총장	김재민		
	교무처장	고동호		
	학생취업지원처장	박주미		
	산학연구처장	이철로		
	사무국장	황호진		
	기획조정본부장	김학용		
	소통복지본부장	손재권		
일반직 위원	인문대학 교수	고규진		
	사범대학 교수	한상욱		
	사범대학 교수	반상진		
	공직협 회장	장환석		
	대학노조 부지부장	박미순		
	총학생회장	백승우		
	대학원 원우회원	박형민		
	전북대 총동창회 상과대동문회장	조춘신	